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憒亂)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사 유예 불평하시 더니, 이화란 장사 있어 일찍 무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 하고 분울해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왈,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 성하에 무익하옴을 주야에 한이 깊삽더니, 이제 여산의 괴변이 고이 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희하사 즉일 ㉠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자, 이화 대희하여 사은하고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부모 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네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려 함은 어찜이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  생이 대 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코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니라.  **[중략 부분 줄거리]** 이화는 아전 집의 자물쇠에 깃든 혼령인 여백 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여 왈,  “네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하나 네가 처치를 잘 못하면 나는 예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이화 은근히 문 왈,  “**좋은 꾀**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오.” 여백 왈,  “저 은행나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 무궁 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 빨아 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잡기를 착실히 할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만군으로 겹겹이 진 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 하고, 대톱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옹과 노파 나올 것이니 억만 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고 ㉡각 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맺어 둘러치고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왈,   |  |  |  | | --- | --- | --- | |  |  |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 | |  |  | | [A] | | |  |  | |  |  |   원이 대소 왈,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어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매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 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둑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함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매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화살과 창검으로 ㉢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  |  |  | | --- | --- | --- | |  |  |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 |  |  | | [B] | | |  |  | |  |  |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  -작자 미상, ｢이화전｣- | |